



필승 결의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대위 출정식에서 후보들이 인사하고 있다(왼쪽). 이날 같은 장소에서 국민의힘 광주시당 후보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광장을 청소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애리 기자

‘정권 심판’ 앞세운 민주, 광주·전남 또 싸늘이할까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광주·전남 선거구를 싸늘이할 지 여부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 선거구 대부분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4면

반면, 격전지로 꼽히는 담양·함평·영광·장성과 광주 광산을,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에서 4·10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떤 후보로 향할 지도 관심 포인트다.

특히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 태풍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광주·전남지역 상승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5·18민주광장에

서 출정식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향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출정식에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광주 8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군택·민형배)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핵심 당원 등 400여명이 참석,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쳤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5대 심판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양평 고속도로 게이트·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김건희 여사 주조작 의혹) 등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병훈 공동선대위원장은 “4월 10일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

Ⓢ 총선 D-12

공식 선거운동 돌입...민주·국민의힘 출정식 지지 호소 초반 판세 민주당 강세 뚜렷...‘격전지’ 표심도 관심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상승세 어디까지 갈지 주목

에서부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이날 오전 6시 30분 5·18민주광장 앞에서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첫 선거운동 쉼터’ 및 출정식을 갖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광주시당 8명의 후보들은 이날 선거운동원과 함께 5·18민주광장 주변과 충장로 상가 주변을 청소하면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8명의 후보들은 “국민의힘 광주시당 7대 공약을 바탕으로 반드시 승리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를 깨뜨리고 광주의 정치 지형을 바꿔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 총선이 되도록 하겠다”

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16년 만에 광주 8개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 등록을 했다.

이날 전남지역에서도 선거구별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지표를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를 제외한 17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전남 선거구 중 민주당 이계호 후보와 무소속 이석형 후보의 사실상 양자 대결 양상을 띠는 담양·함평·영광·장성과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대결하는 광주 광

산을,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정치신인 민주당 권항엽 후보가 경쟁하는 순천·광양·곡성·구례들이 격전지 또는 관심 선거구로 꼽힌다.

이 밖에 여수(민주당 조계원, 무소속 권오봉), 광주 동구(민주당 안도걸, 무소속 김성환)도 이목이 집중되는 선거구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추가 상승 여부도 지역별 대목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 초반 판세는 민주당 우세가 맞지만 격전지나 관심 선거구의 결과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민심의 향배에 따라 이변이 일어날 선거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킬러문항’ 배제 2년차...EBS 체감 연계율 높인다

2025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11월 14일 시행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은 지난해에 이어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출제된다.

또 EBS 체감 연계율은 50%를 유지하되,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한다. ▶관련기사 7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 배제 2년 차를 맞아 적정 변별력

을 유지하기 위해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속 도표, 그림, 지문 등을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국어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 I·II와 함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에 따라 이른바 N수생이 지난해보다 많아져 적정 난이도 출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성호 중로학원 대표는 “올해 고3 학생 수는 지난해 대비 2288명이 증가해 내신, 수능 상위권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 모집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변동 정도, 반수생 유입 정도 등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시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동술 광주진학부장협의회장(수원고 교사)은 “평가원의 수능 기본계획 확대

로만 간다면 좋겠지만 킬러문항을 제거한 상태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해처럼 불수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의대 증원에 따라 최상위권의 변별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다미 기자

Today	
의대교수시직확산·위기감 고조	6면
박계영의 제철음식...‘아귀’	14면
네일, 60이닝 9K ‘강렬한 데뷔전’	16면

제24회 광주매일신문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

2024. 3. 30(토) 오전 8시 30분 |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봄 기운을 느끼면서 올바른 걷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한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가족과 단체·동호회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일시 2024년 3월 30일(토) 오전 8시 30분 ~ 오전 11시 40분

집결장소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접수방법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접수 또는 모바일 접수

접수마감 2024년 3월 28일(목) 오후 6시까지 ※현장접수 가능

참가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4)

참가비 무료

다양한 경품!

TV//공기청정기
자전거//선풍기
다양한 경품과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후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빛고을산물길사랑모임

협찬 조선대학교병원 해양에너지 광주환경공단 전남개발공사 롯데백화점

광주은행 EBS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